

도행지(陶行知)의 학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본 학교교육관 탐색

김향란
(중국 연변대학교)

Tao Xingzhi's School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Practice and Educational Thought of School Education

Jin, Xianglan*
(YanBian University, Chin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tract Tao Xingzhi's (陶行知, 1891-1946) ideas about formal education by investigating his school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practices. Tao Xingzhi established and operated various schools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objective of his school establishment was to expand the range of subjects. Tao provided whole-person education at his schools, and the subject matter was based on his life education theory. Tao combined teaching, learning, and activity to reform the pedagogical process, and his school operations were institutionalized and democratically managed. These aspects were comprised of Tao's ideas about formal education. Tao's ideas might offer valuabl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ormal education.

Key words : Tao Xingzhi, establishment of school, management of school, educational thoughts of school education

I. 서론

도행지(陶行知, 1891-1946)는 중국 근대 교육의 대표학자 중 한 사람으로 중국 교육의 본질적인 변혁을 가져온 교육이론가이며 교육실천가이다. 도행지는 20세기 전기 미국 교육학의 최신 이론을

중국에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당시 중국의 상황에 부합되는 교육이론으로 발전시켰으며 일생을 대중을 위한 교육 사업에 바쳤다.

도행지는 성장과정에서 유가와 묵가의 사상, 기독교 사상, 듀이 교육철학,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삼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한 이념과 교육 사상을 접하게 된다. 특히 미국 유학 중 듀이 교육사상의 영향을 받은 도행지는 당시 중국의 다수 교육가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도행지는 교육을 통한 민족해방의 길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실천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교육실천을 통해 도행지의 교육사상이 형성되었고 다시 실천의 고증을 거쳐 풍성한 교육이론으로 발전되었다.

도행지 교육 사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며 그 교육적 가치는 끊임없이 검증되어지고 있다. 중국에서의 도행지 교육사상 관련 연구는 20세기 4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시작기, 1966년부터 개혁개방 전 문화대혁명시기의 침체기, 20세기 80년대부터 20세기 말까지의 발전기, 21세기에 들어서 최근 십여 년 사이의 번영기 등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王紫斌, 2013). 특히 1985년부터 도행지 교육사상 관련 연구 전문 단체인 “중국도행지연구회(中國陶行知研究會)”가 중국의 23개 성, 시에 잇따라 설립되면서 도행지 자료집의 편찬과 교육사상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에서의 도행지 교육사상 관련 연구들로는 도행지의 생활교육론에 관한 구자역(1998), 김귀성(1998, 2001, 2012), 김민지(1998), 이경자(2003), 이상욱(2010), 최혜성(2003) 등의 연구들과 도행지의 아동교육론, 노작교육론, 민족해방교육론 등 교육 사상에 대해 소개한 김귀성(1992, 1994, 2002)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행지의 교육 사상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외 이병주(1986)의 연구는 1950년대 도행지 교육 사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고 이재령(1995)은 도행지의 교육구국을 위한 교육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행지의 교육 사상에 대한 소개를 주요 맥락으로 도행지의 교육이론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시사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이러한 도행지의 교육이론이 형성된 실천의 장(場)으로서의 도행지가 설립한 학교에 대해서는 단지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행지의 교육실천은 그의 교육 사상의 형성에 엄청난 자양분을 공급하였는바 그의 교육활동을 떠나서는 도행지 교육 사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교육활동의 장이 바로 그가 설립한 학교들이다. 도행지는 대중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생동안 여러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였다. 도행지가 설립하였거나 설립에 참여한 학교들로는 南京曉庄學校, 南京安徽公學, 山海工學團, 浙江湘湖師範, 廣東大埔百侯中學, 普寧梅峰公學, 香港中華業余補習學校, 重慶育才學校, 重慶社會大學 등이 있다. 이 학교들은 도행지가 당시 중국 사회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자신의 교육이념에 따른 교육실천의 결과물이다. 도행지는 자신이 설립한 학교의 관리자로서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도행지가 상술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그가 학교교육과 학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알아보고 이러한 교육실천이 도행지의 교육사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도행지가 세운 학교들의 설립 배경과 운영 과정 등 도행지의 학교 운영 실천을 살펴보고 도행지의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생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도행지의 교육실천이 그의 교육사상의 흐름에 미친 영향과 현대 학교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도행지가 발표한 논고, 서신, 연설문 및 기존 관련 연구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I. 도행지의 학교 설립 및 운영 실천

도행지의 일생은 수학기, 신교육제창기, 교육보급운동기, 국난교육기, 민주교육기 등 다섯 단계로 나누어진다(김귀성, 2002). 수학기는 1891년부터 1917년 사이로 도행지의 교육 사상 형성에 밑거름이 된 시기이다. 1917년 미국에서 귀국한 도행지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교육실천을 시작하였다. 신교육제창기에 도행지는 남경고등사범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전통교육을 비판하고 미국의 최신 교육이론을 소개하는데 주력하였다. 1923년 이후 교육보급운동기로 넘어가면서 도행지의 교육실천은 서양 교육이론의 소개에서 중국의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의 보급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시기는 도행지의 생활교육, 평민교육, 향촌교육, 대중교육 등 기본적인 교육사상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학교로는 1927년의 효장사범학교와 1932년의 산해공학단이 있다. 1936년부터 도행지는 당시 중일전쟁 하에 항일구국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하게 되면서 국난교육기의 교육실천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 시기 도행지의 교육활동은 전시교육으로 전환되어 1938년 중경에 육재학교를 설립한다. 1945년 일본 패배에 따라 도행지의 교육실천은 다시 민주교육으로 전환되었다.

도행지의 교육실천의 행보를 본다면 당시 중국 사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일반화된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직감하고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효장사범학교는 도행지가 당시 중국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 양성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설립한 사범학교이며, 산해공학단은 그가 사범교육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식의 학교교육을 보급시키기 위한 실천의 결과물이다. 그 뒤 전시교육에 맞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실천이 바로 육재학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도행지가 설립한 학교 중에서 비교적 대표적인 효장사범학교, 산해공학단, 육재학교 등 세 개 학교의 설립 배경과 운영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효장사범학교의 설립 및 운영

1919년 ‘5·4운동’ 이후 도행지는 채원배 등과 중화교육개진사(中华教育改进社)를 조직하고 이어 중화평민교육촉진회(中华平民教育运动促进会)를 설립하여 평민교육운동에 전념하게 된다. 도행지는 중국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에 있으며 향촌생활에 적합한 교육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출구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평민교육, 농촌으로”를 언급하였다. 도행지는 농촌에서 교육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사

범학교를 설립하여 향촌교육에 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 하에 효장사범학교(정식 명칭: 南京試驗鄉村師範學校)를 설립하게 된다.

1927년 1월 도행지는 남경 시교에 실험향촌사범학교 설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절차를 논의 하였다. 이어 2월 상해에서 소집된 실험향촌사범학교 이사회는 향촌사범의 조직구성을 확정짓고 학교 내에 집행부, 연구부, 감찰부를 설치하고 집행부 하에 제1원(小學示范院)과 제2원(幼稚示范院)을 설립하였다. 3월 효장실험향촌사범학교가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1기 학생으로 13명을 모집하였다. 입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육체노동을 할 수 있으며 작문, 수학 외에 5분 정도의 스피치 시험을 보게 하였다. 같은 해 6월부터 효장중심소학교를 시작으로 여섯 개의 소학교가 세워졌고 1929년 7월에 이 소학교들을 전부 학원으로 개명하였다. 이어 이 학원들은 하나로 합병되어 향촌청소년교육의 실험무대가 되었다. 1930년 4월 효장학원의 사생들이 항일시위에 나서게 되면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어 학교가 강제적으로 폐쇄되었다. 1932년에 이르러 국내외 여론의 영향으로 국민당정부는 효장학원에 제재를 해제하고 다시 개교하였으나 3개월 만에 다시 폐쇄되었다.

효장사범학교의 설립 목적에 대하여 도행지는 “건강한 심신, 과학적인 두뇌, 농부의 솜씨, 예술적인 흥취, 사회개혁의 정신”으로 요약하였다(陶行知全集, 2011). 효장사범학교는 도행지의 생활교육론이 형성되고 빛을 발한 곳이었다. 그는 주지교육을 비판하는 생활교육론을 정립하여 학교 운영에 실천하였다. 학교 설립 초기 교육시설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야산에 나무를 심게 하였고 최저의 금액으로 학생이 머무를 초가집을 스스로 마련하게 하였다. 효장사범학교 전교 사생들은 힘을 합쳐 함께 학교 건물을 지었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농사일을 하는 등 ‘교학주합일(敎學做合一)’의 교수방식으로 실천 중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였다. 또한 도행지는 독서를 강조하여 필독서를 선정하여 매달 평가를 실시하였고, 예술교육을 중요한 교육내용 중 하나로 보고 학생들의 예술적 취미를 기르고자 심열을 기울여 효장연극사를 창립하여 친히 극본을 만들어 순회공연을 조직하였다.

효장사범학교는 중국 향촌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향촌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이다. 따라서 도행지는 실천을 떠난 사범교육을 지탄하면서 효장사범학교 사생들에게 농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동시에 초등학생들의 요구와 수요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효장사범학교는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사범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범학교 설립 이후 부설 소학교와 유치원이 잇따라 설립되었고 효장사범학교에는 소학교 지도부를 증설하여 소학교를 지원하고 사범생들의 소학교에서의 수업활동을 지도하였다.

또한 효장사범학교는 농민들을 위해 복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친구 만나러 가기’ 활동에서는 학생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매주 한차례 지정된 마을로 가서 농민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며 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평민학교를 설립하여 효장사범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가르치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촌교육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교육활동 외에도 중심차원(茶園), 향촌병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증설하여 향촌교육의 발전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2. 산해공학단의 설립 및 운영

효장사범학교 폐쇄이후 도행지는 효장사범학교를 다시 개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였으나 결코 이루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행지는 당시 대다수의 농민들이 학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시기 중국은 일본의 전쟁 도발로 생사존망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형식적인 일반교육은 당시 중국의 사회적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형식의 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1932년 10월 1일 도행지는 상해에 산해공학단(山海工學團)을 설립하였다. 공학단의 공은 노동, 學은 과학, 團은 단체를 의미한다. 이는 일터, 학교, 사회가 하나로 되어 생활교육을 일터와 사회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형식의 학교였다. 도행지는 ‘山海工學團試驗初步計劃說明書’에서 전통적인 학교교육은 사회와 학교를, 생활과 교육을, 선생과 학생을, 교수와 행함을,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지와 행을, 대중과 관리인을 구분하고 있으나 산해공학단은 이들의 경계선을 없애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효장의 정신으로, 효장보다는 더 융통성 있는 공학단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陶行知全集, 2011).

산해공학단은 농촌의 실재와 결부하여 학교, 농촌, 공장을 하나로 만들어 인재시교를 실천하였다. 산해공학단에서 학생은 오전 중에는 어학, 산술, 자연과학, 역사과학 등을 학습하고, 오후에는 노동을 통하여 그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학비를 지불하였다. 또한 소선생제(小先生制), 전체선생제(全體先生制)를 도입하여 선생과 학생의 역할분담을 없애고 모르는 것은 배우고 아는 것은 가르치는 ‘교학주합일’과 즉지즉전(卽知卽傳)의 교수학습방식을 실천하였다.

산해공학단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아동공학단, 청년공학단, 여성공학단 등을 설립하고 대중들과 함께하는 교육을 보급하였으며 항일구국의 선봉역할을 담당하였다.

3. 육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

1938년 도행지가 귀국할 당시 중일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의 교육활동은 전시교육(戰時教育)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 도행지는 재능을 가진 아동들이 전쟁 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 몰살되는 현실을 통탄하고 아동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능 있는 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중경에 육재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1939년 6월 육재학교설립을 위한 첫 회의가 소집되어 육재학교의 조직구성에 대해 확정되었다. 육재학교는 이사회 아래 교무회를, 학교장 아래에 총무부, 지도부와 연구부를 설립하고 음악, 연극, 문학, 사회, 미술 등으로 조를 나누었다. 또한 이 회의에서 학생 선발 방식, 교사의 대우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어 1942년에 자연조가, 1944년에 무용조가 새로 설립되었다.

육재학교는 전시(戰時)상황에서 아동에게 빼앗긴 교육기회를 돌려주고, 아동들의 숨겨져 있는 재능을 발굴하며 ‘인용지합일(仁勇智合一)’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도행지는 ‘育才學校教育綱

要草案’에서 육재학교는 교학주합일의 교수학습방법을 통하여 이론과 실천을 결부시켜 학생들의 자주의식을 심어주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육재학교는 집단생활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단결우애 정신을 기르고 인재시교의 모범을 보였다. 집단생활제도의 핵심은 학생자치제도이다. 학생 자치를 통하여 학생이 스스로 학교의 운영과 자신의 학교생활에 책임지고 ‘교학주합일’을 실천하였다.

육재학교는 도행지의 집단주의 교육사상, 창조교육사상 및 민주교육사상에 힘입어 이루어진 교육 실천이다. 1939년 7월 첫 입학식을 하고 8월부터 수업을 시작한 육재학교는 교육과정을 1개의 기초과정과 음악, 연극, 미술, 무용, 문학, 자연, 사회 등 7개의 특수과정으로 나누어 개별 재능교육과 집단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재능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학교 창설 초기 육재학교의 교육내용은 단체생활을 기본으로 노동생활, 문화생활, 사상생활과 건강생활을 연계시켜 노동적 교육, 문화적 교육, 사상적 교육, 건강한 교육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노작교육”사상의 요구에 따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길을 닦고 운동장과 농구장을 만들었으며 학교 주변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또한 매일 아침 기상 후 전교 사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하고 5분간의 조회를 통하여 국내외 시사를 전달하였다. 도행지는 사상교육도 매우 중요시하였는바 여러 가지 강연과 기념활동을 통하여 항일구국 영웅들을 소개하였다. 건강생활에 대해서 ‘건강 제일’의 구호 하에 건강교육으로 의사를 대체하고 학생들을 소의사(小醫生)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육재학교 학내의 위생청결제도를 건립하고 학생 체질의 향상에 힘썼다. 개교 초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공장 농촌으로 내려갔고 그 곳에서 대중들과 어울리고 친구가 되어 항일구국 사상을 선전하였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닦친 시기에도 육재학교는 사회실천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미술조는 중경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연극조는 아동연극을 하였으며, 음악조는 연주회를 하는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를 통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육재학교는 학생들로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받지 않았고 입학시험과 졸업시험이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요에 따라 수시로 학교를 떠나 항일구국 운동이나 인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었다.

또한 도행지는 “育才學校禮節和公約”, “育才十二要”, “育才學校公約”, “育才三方針”, “育才十字訣”, “育才二十三常能”, “育才衛生教育二十九事” 등 여러 학내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육재학교의 운영을 제도화시켰다.

1941년 “환남사변” 이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잇따르자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정상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가져다주었다. 교사가 적어지자 도행지는 학생들에게 자습을 하게하고 “소선생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당시 전시상황에서 학교의 재정상황이 어렵고 특수과정의 강의를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게 되자 도행지는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 강의를 맡게 하였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였다. 항일전쟁 승리 후 1945년 연말부터 도행지는 육재학교를 중경 시교로 옮겨 규모를 확장할 준비를 하였다. 1946년 4월 육재학교의 본부를 이전할 준비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다.

Ⅲ. 도행지의 학교교육관 분석

앞부분에서 도행지의 교육실천 중 그가 세운 학교들인 효장사범학교, 산해공학단 및 육재학교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살펴보았다. 도행지는 이 학교들의 창설자인 동시에 학교의 운영자였다. 그는 직접 학교 운영에 나섰고 자신의 교육이론을 적용하여 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행지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는 실천으로 전환되면서 그 이론적인 틀을 구성해가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도행지의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맥락을 조망하여 도행지의 학교 설립 및 운영 활동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학교 교육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학교 설립 목적 - 교육대상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식의 학교 설립

도행지의 교육실천은 학교 설립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행지의 생활교육사상이 형성되고 실천된 첫 실험무대였던 효장사범학교는 농촌교육에 임할 수 있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중국교육의 변혁을 일으키고자 진행한 교육 실천이었다. 효장사범학교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학교가 아니라 농촌교육에 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축으로 사범학교 학생들이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는 유치원과 초, 중등학교를 포함하는 학교군을 구축하였고 사범학교 학생들의 실천을 통해 농촌교육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산해공학단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을 비판하면서 기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학교교육으로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육재학교 역시 전시상황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학교였다. 이 세 학교 외에도 도행지가 설립한 혹은 설립에 참여한 많은 학교들의 설립목적은 보면 모두 당시 특수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교육을 보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도행지는 학교교육의 대상에 대하여 특정된 집단으로 한정짓지 않았다. 도행지 학교교육의 교육대상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여성, 청장년을 망라한 나이, 성별, 빈부귀천, 사회계층 등 차별 없이 모든 이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학교교육의 보급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돌려주고 이를 통한 교육구국의 확고한 신념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도행지의 이론적 저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행지는 생활교육론에서 ‘사회’ 즉 ‘학교’를 언급하면서 학교를 사회의 일부분으로 보는 동시에 사회 전체를 또 하나의 커다란 학교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 즉 학교”는 사회와 대중의 수요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내용들을 가르치고, 사회 각 분야의 역량을 동원하여 학교와 사회의 연계성을 구축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2. 학교 교육목표 - 전인교육의 실현

도행지는 학교교육을 중요시하였고 학교교육의 보급을 통한 중국교육의 변혁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도행지는 기존의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학교교육을 지탄하면서 사회제도에 따른 기존 형식과 고정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수요와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변통이 가능한 새로운 대중적인 학교교육을 강조하고 실천하였다.

도행지는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형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심신을 가지고 숨겨져 있는 재능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한 국민으로 양성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효장사범학교의 “건강한 심신, 과학적인 두뇌, 농부의 솜씨, 예술적인 흥취, 사회개혁의 정신”으로 요약되는 교육목표와 육재학교의 ‘인용지합일(仁勇智合一)’의 교육목표에서 그의 전인교육 사상을 엿볼 수가 있다.

도행지는 개개인은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내적인 가치를 발현하고 실현하는 것을 통하여 공화국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시 중국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한 대중의 민주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여 교육구국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였으며 중국교육의 본질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사회의 전반적인 변혁을 기대하였다.

3. 학교 교육내용 - 생활교육에 입각한 교육내용

두이 교육철학의 영향을 받은 도행지는 주지교육을 비판하고 생활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교 교육내용의 선정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생활 속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학교와 사회의 경계를 넘어 노동 속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노동에 적용하는 생활교육을 지향하였다. 생활교육론의 기본이 되는 “생활 즉 교육”에 대하여 도행지는 생활교육은 생활의, 생활에 의한, 생활을 위한 교육으로 양자 사이에서 생활이 교육을 결정하며 교육은 생활에 의해서야만 진정한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陶行知全集-4, 1991).

생활교육론이 정립되고 실천된 효장사범학교와 효장사범의 정신을 이어받은 산해공학단 그리고 노동교육, 문화교육, 사상교육, 건강교육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한 육재학교는 모두 학생의 생활과 연관된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의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연마하게 하였다. 도행지의 이러한 교육내용관은 학교의 교육적 여건이 여의치 않았던 당시 중국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교육내용을 모색한 결과이다.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4. 학교 교육방법 - 교사와 학생의 역할분담을 최소화한 “교학주합일” 교수학습방식

도행지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선생과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선생이고 학습하는 자가 학생이라는 전제 하에 교사와 학생이 행함을 통하여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교학주합일'의 교육방법을 정립하였다. 이는 도행지 생활교육론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효장사범학교에서 도행지는 교사는 학생과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며,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육재학교에서는 교사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은 집단생활 중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침과 배움의 분리를 반대하고 교사는 학생의 수요에 따라 인재시교를 실시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도행지의 교사관에 따라 효장사범학교, 육재학교 등은 모두 교학주합일의 교수학습방식을 사용하여 교사와 학생의 역할분담을 최소화하고 교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생활교육의 취지에 따라 실용적이고 생활적인 내용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침으로써 '지'와 '행'의 통일을 도모하였다. 소선생제와 전체 선생제는 '교학주합일'과 “즉지즉전”의 교수학습방식의 대표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5. 학교 운영 -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제도화, 민주화 관리

도행지는 시종일관 대중을 위한 학교를 만들려고 하였고 대중과 함께 학교를 운영해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도행지는 매번 학교를 설립할 때마다 모두 그 학교의 상황과 설립취지에 따른 다양한 학교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준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육재학교시기에는 ‘育才學校禮節和公約’, ‘育才十二要’, ‘育才學校公約’, ‘育才三方針’, ‘育才十字訣’, ‘育才二十三常能’, ‘育才衛生教育二十九事’ 등 다양한 학교 학칙들과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학칙과 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지도하고 학교 운영의 규범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칙과 규정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논의하여 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게끔 하였다.

또한 도행지는 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외적인 관리와 학생의 자치가 서로 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여 그는 학생 자치제도를 통하여 학교 내에서의 민주화 관리를 실현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도행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치에 관련된 훈련을 받지 못하고 '통치'를 받기만 한다면 영원히 자치의 능력을 기를 수 없으며 중국은 영원히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학생 자치제도는 민주주의공화국의 요구에 부합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학생 자치는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는 데 첫째, 학교는 학칙과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여 학생의 사상과 행동에 규제력을 가함으로써 학생의 자발적인 행동력을 기르는 것과 둘째, 학생 스스로의 자아관리이다. 학생 자치에서의 학생은 전체 학생을 가리키며 단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자치는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며 立法, 執法, 司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학생의 자치제도는 학생들

에게 자치제도에 대한 습득과 훈련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도행지는 효장사범학교와 육재학교에서 모두 학생 관리와 학생 자치를 병행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치제도를 통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IV. 결론

이 글에서는 도행지의 학교 설립 및 운영에서의 교육실천을 살펴보고 도행지의 학교교육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실천가의 평을 받고 있는 도행지는 평생동안 대중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효장사범학교를 시작으로 잇따른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은 도행지의 교육이론의 정립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고 이론과 실천을 연계시켜주는 장을 제공하여 그의 교육 사상을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교육이론으로 승화시켰다. 따라서 도행지의 학교 설립과 운영 과정에 형성된 학교교육관에 대한 논의는 그의 교육 실천과 교육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기존의 도행지 교육 사상에 대한 내용중심의 탐구에서 실천중심의 탐구로의 변화에 대한 시도이다.

도행지의 교육사상은 이질적인 서구문화가 중국 사회 전반에 침투되는 시기에 형성, 발전되었고 이에 따른 그의 교육실천은 이러한 시대적 특징에 힘입어 서구의 학교교육제도를 중국에 보급하고 학교교육으로 중국 교육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도행지가 실천하고자 했던 학교교육은 서구의 학교교육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닌 당시 중국의 특정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이었다.

도행지는 대중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이 중에서 비교적 대표적인 학교들로는 향촌교사의 양성을 통하여 농촌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한 효장사범학교, 사회와 학교를 하나로 연결시킨 산해공학단, 특수재능을 가진 아동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육재학교 등이 있다. 이 학교들의 설립취지와 교육대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설립 목적과 학교교육활동은 대동소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학교들은 모두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도행지의 교육실천으로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목표 하에 생활교육론에 입각한 교육내용으로 교사와 학생의 역할분담을 최소화한 “교학주합일”의 교수학습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영에서 학칙과 각종 제도를 통한 제도화 관리와 학생 자치를 통한 민주화 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행지의 학교교육의 실천은 후기로 갈수록 보다 체계화되고 있다. 이는 육재학교의 교수형태, 교육방법, 집단주의 교육 등 일련의 교육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행지의 교육실천은 학교교육의 교육대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학교 운영의 본질적인 변혁을 일으켰으며 기존의 학교교육의 체계와 형식에 참신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도행지의 학교교육관은 중국교육의 근대화과정에서 학교교육에 관련된 서구교육이론의 수용과 중국에서의 토착

화를 통하여 새롭게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행지의 학교교육 실천과 교육관은 중국 근대교육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구국은 대중들에게 민족의식을 불려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도행지의 교육실천과 학교교육관은 현대 학교교육의 발전에도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설립 및 운영은 도행지의 대표적 교육실천으로 도행지의 교육이론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당시 중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하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단시간 운영되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최종적으로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교육실천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행지 교육이론의 실천적 적용에서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구자억(1998). “타오싱즈의 생활교육론”. 교육철학회, 教育哲學, 제19집, 75-92.
- 김귀성(1990). “陶行知의 生活教育論”. 신룡교회, 정신개벽논집, 제9집, 147-166.
- 김귀성(1992). “陶行知의 兒童教育論”. 圓光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教育研究, 제10집, 21-39.
- 김귀성(1994). “陶行知의 勞作教育思想”.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제16집, 155-186.
- 김귀성(2001). “타오싱즈 생활교육론의 사상적 배경-그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철학회, 教育哲學, 제26집, 47-73.
- 김귀성(2002a). “타오싱즈의 민족해방 교육론”.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教育問題研究, 제16집, 55-80.
- 김귀성(2002b). 타오싱즈 생활교육론의 전개. 서울: 문음사.
- 김귀성(2012). 陶行知의 생활교육론에서 예술의 교육적 의미=陶行知的艺术教育意义注重生活教育论. 한국교육사상연구회, 教育사상연구, Vol. 26 No. 2, 21-41.
- 김귀성 편역(1996). 생활이 바로 교육이다.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김민지(1998). “도행지(1891-1946)의 생활교육사상”. 중국사학회, 中國史研究, 제3집, 85-122.
- 이경자(2003). “도행지의 생활교육사상”. 교육비평사, 教育비평, 제11집, 140-166.
- 이병주(1986). “中共의 陶行知教育思想批判(1951~1953)”.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東亞研究, 제10집, 119-170.
- 이상옥(2010). 타오싱즈(陶行知) 실용주의교육을 통해 본 근대 중국의 계몽교육, 교육철학회, 教育철학, Vol. 41, 379-406.
- 이재령(1995). “항일전기(1931~1937)도행지의 항일론과 교육구국운동”. 단국대 대학원, 學術論叢, 제19집, 275-314.
- 陶行知(1991). 陶行知全集(1-12). 成都: 四川教育出版社.
- 陶行知(2011). 陶行知全集. 南京: 江苏教育出版社.
- 王紫斌(2013). 陶行知教育思想研究:历史、问题及趋势. 基础教育研究, 2013(2), 7-10.
- 中国陶行知研究会网. <http://www.taoxingzhi.org>.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도행지의 대표적인 교육실천인 학교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행지의 학교교육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행지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이 학교들은 교육대상의 보편화를 위한 도행지의 교육실천으로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목표 하에 생활교육론에 입각한 교육내용으로 교사와 학생의 역할분담을 최소화한 “교학주합일”의 교수학습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영에서 학칙과 각종 제도를 통한 제도화 관리와 학생 자치를 통한 민주화 관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도행지의 교육실천은 학교교육의 교육대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학교 운영의 본질적인 변혁을 일으켰으며 현대 학교교육의 발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도행지, 학교 설립, 학교 운영, 학교교육관